



붉은 배 한 척을 콘셉트로 잡은 아산 주택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붉은 배를 콘셉트로 디자인한 역동적인 주택이 있다.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조망권인 동쪽으로 향해하듯이 주택을 동서를 길게 배치한 형태다. 지하부터 다락까지 다른 재료를 적용하고, 붉은벽돌로 전면 난간에서부터 후면 주차장까지 수평으로 길게 연결한 부분에서 안정성과 역동성이란 반전의 매력이 느껴진다.

글 최은지 기자 | 사진 자료협조 ㈜지아이피건축사사무소



경사 급한 대지에 앉힌 주택

건축주 부부는 6년 전부터 전원주택을 계획했다. 동물을 좋아하는 수의사 남편이 3마리(짚아, 솜이, 밍키)의 반려견을 아파트가 아닌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부는 도시의 편리함과 전원의 쾌적함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집터를 찾았다.

“저희는 외딴 시골은 싫었기에 도시생활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기에서 신도시인 천안 신불당동까지 걸어서 3분 거리고, 5km 정도 거리에 갤럭시아백화점을 비롯해 대형 마트가 있으며, 지하철 1호선 아산역과 기차역인 천안아산역이 있어요. 무엇보다 주변에

HOUSE NOTE

DATA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당정면
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
건축구조	지하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 경량 목구조
대지면적	647,00㎡(195,72평)
건축면적	128,51㎡(38,87평)
건폐율	19,86%
연면적	194,78㎡(58,92평) 1층 114,58㎡(34,66평) 2층 80,20㎡(24,26평)
용적률	30,11%
설계기간	2017년 4월~8월
공사기간	2018년 2월~8월
설계	(주)지아이피건축사사무소 031-8020-8800 www.ecocellhome.com
시공	JP하우징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GM-Roof 220 벽 - 세라믹, 적고파벽돌, 노출콘크리트 데크 - 현무암 30T
내부마감	천장 - 도장(공용 공간), 실크 도배(침실) 벽 - 도장(공용 공간), 실크 도배(침실) 바닥 - 타일, 강마루
계단실	난간 - 금속 현장 제작
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 25k T285(에너지세이버) 지하 - 외단열: 압출법 보온판 T100 지상 - 외단열: 비드법보온판 T80, 내단열: 25k T89(에너지세이버)
창호	통풍도어(MADIO-J)
현관문	VENATO-M05(일본 수입)
위생기구	대림, 일본 수입, AICA



01

01 지하는 남편의 취미실로 수제 맥주를 만들고 시험하는 공간이다. 폴딩도어로 외부 데크와 마당이 연결된다.
02 현관으로 들어서면 주택 내부가 동쪽을 향해 전망이 막히지 않는다.

숲이 있고 봄이면 하얀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배밭이 보여 전원 분위기가 물씬 풍겨요. 도시 속의 전원이랄까, 여기에 반해 집을 앉힌 거예요.”

설계와 시공은 (주)지아이피건축사사무소에 맡겼다. 부부는 “건축박람회에서 알게 된 지아이 피건축사사무소의 디테일한 디자인과 친환경 자재 사용이 맘에 들었다”고 한다.

아산 주택의 대지는 최상층과 최하층 간의 레벨 차가 5m 이상이라 디자인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을 법하다.

“평지로 만들려면 성토 후에 옹벽을 1.5m 이상 내측으로 쌓아야 했는데, 이 경우 정면에 정원을 만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건축가의 의견에 따라 옹벽 쌓기가 아닌 레벨 차를 활용한 설계로 진행해 집을 지은 거예요.”

주택 배치는 동쪽으로 가파른 자연 지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남·북으로 들어선 이웃 집을 고려해 동서 방향으로 길게 늘어뜨린 형태다. 주택의 남측면에 이웃 간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면서 채광을 확보하기 위한 작고 긴 고측창이 있고, 북측면에 공간의 크기에 따라 분리한 레이어 틸새에 간접조명이 설치돼 있다.

층으로 나눈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건축주와 건축가는 신경을 쓴 부분이 주택의 동선과 공간 분리다. 동선은 진입로에서 주차장, 현관, 실내로 물 흐르듯 이어지고, 공간은 지하층은 취미실, 1층은 공적 공간, 2층은 사적 공간으로 분리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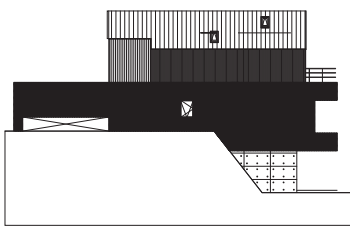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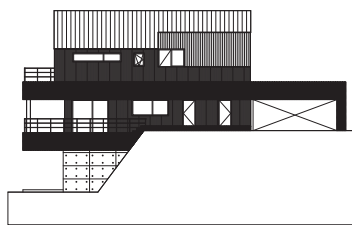


03

03/04 거실과 주방 사이에 단차가 있어 거실로 진입하면서 공간감을 느낀다. 거실 연장선상에 아내의 개인 공간 겸 손님용 게스트룸을 가변형 도어로 구분한 별도의 공간이 있다.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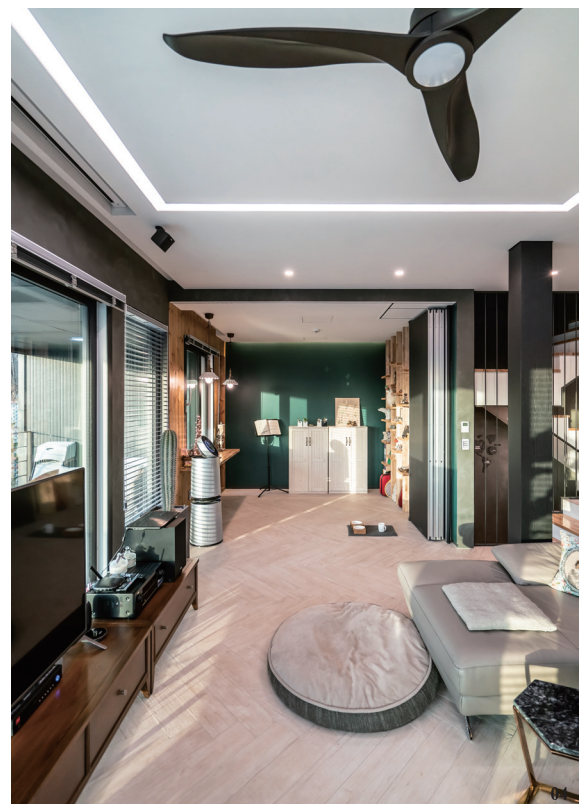
서측면도



남측면도



북측면도





05

05 아내가 아일랜드 주방을 원해 주방과 식사 공간 사이에 아일랜드 식탁을 뒀다. 주방 가구는 스테인리스 상판과 우드로 조합했다.

06 아내는 보조 주방을 뒤 뽀세나는 음식을 조리할 때 편하고,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는 물건을 둘 수 있어 좋다고 한다.

07 현관에 들어서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마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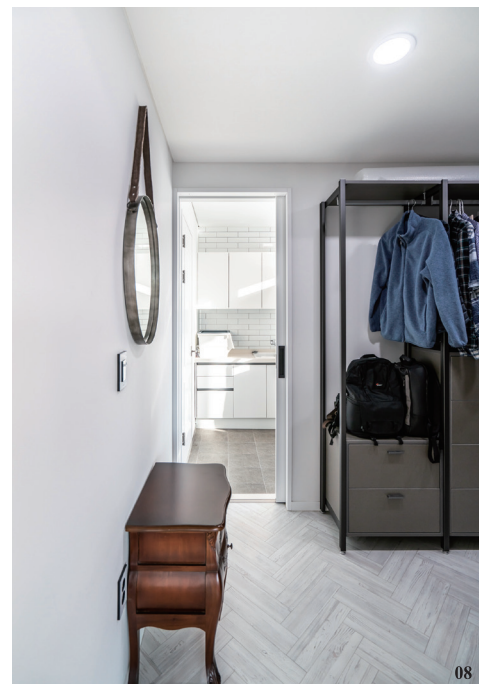
08 2층은 안방, 욕실, 드레스룸, 세탁실이 하나의 동선으로 묶여 있다. 특히 세탁실은 남향에 베란다도 같이 배치해 빨래도 널 수 있다.



06



07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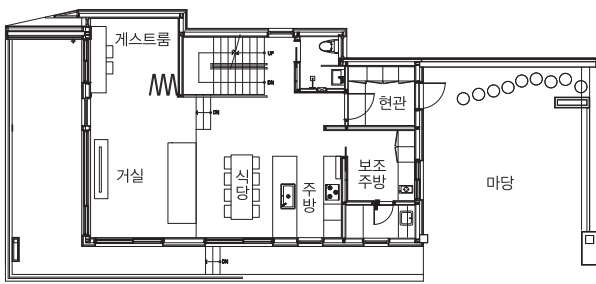


현관으로 들어서면 먼저 거실로 이어지는 짧은 계단과 지하와 2층으로 오르내리는 계단이 보인다. 지하층은 남편이 수제 맥주를 만들며 실험하는 취미실로 사용한다. 지하 공간과 외부 테라스 사이에 폴딩도어를 설치해 반려견들이 1층과 지하층을 자유롭게 오르내리고, 또 마당으로도 드나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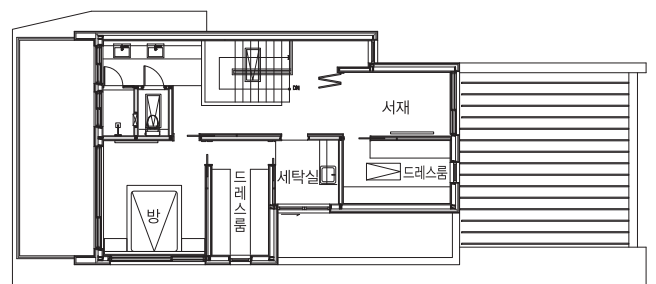
공용 공간과 사적 공간을 층으로 구분한 이유를, 부부는 “아파트에서 생활할 때 거실의 TV 소리가 안방까지 들려 불편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09 안방 침실은 1층 거실과 같은 위치에 배치해 집에서 풍부한 햇살이 스며들고 전망이 탁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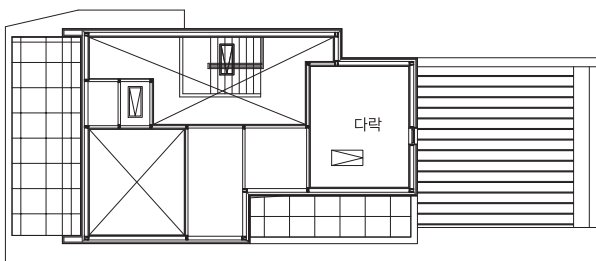
10 2층 욕실 파우더룸과 세면실은 일체형으로 하고 지붕 모양에 따라 개방해 분위기가 시원스럽고 깔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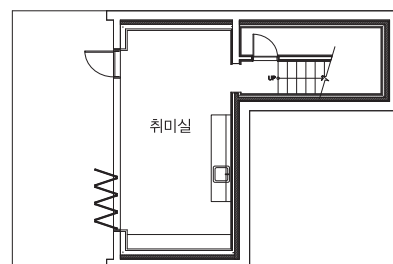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다락 평면도



지하 평면도



11 거실과 안방 앞엔 발코니를 뒀다. 아랫마을에서 발코니에 막혀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 거실 앞 발코니에서 보조 주방까지 데크를 뒤 동선이 이어진다.

12 주차장 옆 주택으로 들어가는 입구

13 가파른 경사면에 따라 동서로 길게 배치했으며, 지하부터 다락까지 층마다 다른 재료를 적용했다. 특히 2층은 선박의 조종실과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금속 재료를 사용했으며, 다락 부분만 목재로 분리했다.

14/15 붉은벽돌로 전면 난간에서부터 후면 주차장까지 길게 연결한 직선은 거실을 입체적으로 감싸면서 필로티 구조로 인해 발코니에서 비를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공용 공간인 1층은 오픈 스페이스 구조로 주변 경관이 한눈에 들어오는 동쪽 전면에 거실이 있고, 단차를 달리해 현관이 있는 배면에 주방/식당, 보조 주방이 있다. 단차로 인해 현관에서 주방/식당, 거실로 진입하면서 공간감을 느끼고, 거실에 이르면 큼직한 창을 통해 주변 경관을 내다보면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거실 연장선상에 아내의 개인 공간 겸 손님용 게스트룸을 가변형 도어로 구분한 별도의 공간이 있다. 1층 바닥에 깐 눈슬립 타일은 반려견을 위한 배려다.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흰색과 우드 톤으로 모던하고 심플한 스타일로 연출해 카페 같은 분위기가 감돈다.

사적 공간으로 계획한 2층에 오르면 계단실 전면에 가벽으로 구분한 서재가 보인다. 복도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방, 욕실, 드레스룸, 세탁실이 하나의 동선상에 연결돼 있어 편리해 보인다. 안방은 1층 거실과 마찬가지로 동쪽에 배치해 전망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햇살이 스며들지만, 발코니로 인해 외부에서 내부는 들여다보이지 않는다. 지붕의 경사를 살린 안방 옆에 있는 욕실 파우더룸과 세면실은 일체형으로 분위기가 시원스럽고 깔끔하다. 또한, 화장실에 높은 천창도 뒤 자연광을 끌어들이는 점도 눈에 띈다.

부부는 “눈을 뜨면 주변의 자연경관이 눈에 들어와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한다”면서, “물론, 아파트에 비해 일이 늘어났지만, 그마저 전원생활의 행복감으로 다가온다”고 한다. 바라던 대로 반려견과 함께 편하게 살아가는 부부에게 전원에서 생활하면서 얻은 행복감이 배어 나온다.

